

#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추진단 가동

### 도, 기금사업 신속집행 통해 민생·지역활력 제고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이다. 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첫 출범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제로 도의회, 지방행정연구원 및 전북연구원, 익산·정읍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가 4단계(S·A·B·C)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되고, 기금사업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확대되는 등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청해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과 전략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평가 대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시군에

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현재 도와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대부분이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서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제고해 달라고 시군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조례 발의 후, 전북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 전북자치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총력

### 하천·계곡 등 7개 분야 수상안전관리 계획 수립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전북자치도가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전북자치도

는 하천·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물놀이 유원시설, 수상 및 수중레저시설, 저수지 등 7개 수상 안전분야에 대해 안전시설 확충, 비상근무반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수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6월부터 시군,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상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

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응급대처 및 보고요령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를 수상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해 시·군 및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물놀이 현장이 연계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놀이 성수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소방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5개 시군(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임실) 10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에 자동제세동기(AED)를 배치하고, 현장 안전요원의 체력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 시 초동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물놀이객들은 입수 전 사전 준비 운동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정기숙련도 평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측정 대행업체의 적정수행 여부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분야 정기숙련도 평가'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측정 대행업체는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으로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평가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시료 채취 및 대기 배출가스 자동측정

기 운영능력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한다. 숙련도 평가는 해마다 시행하는 법정평가이며,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에 재평가가 진행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측정 대행업체의 역량 강화와 측정결과 신

뢰도 확보를 위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흡한 부분은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는 14개 업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 "재활용품 가져오면 생활용품 드려요"

### 도, 온실가스 감축 위한 분리배출 실천문화 확산 유도

전북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활용 실천운동 확산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종이팩, 폐전지, 아이스팩, 친환경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유 등 마시고 남은 종이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매수와 크기에 따라 친환경 화장지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폐전지 7개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할 수 있다. 아이스팩은 5개, 친환경 상패는 2개를 모아오면 각각 종량제 봉투(10L)로 교환해준다. 교환장소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교환기준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

민센터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친환경 상패란 아크릴 재질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목재, 금속, 종이 등을 원료로 만든 상패다. 아이스팩은 고품수성 수지의 절형제 아이스팩만 해당이 되며, 결면을 씻어 건조한 상태로 종이상자 등에 담아오면 된다. 고품수성 수지의 아이스팩의 경우 자연 분해가 어려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 아이스팩 사용이 필요하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 중립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최병관 부지사, 팔복예술공장 현장 찾아

### 야간관광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저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현장을 찾아 'Club The 8' 야간관광 콘텐츠를 관람하고 야간관광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 원도심과 함께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 야간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어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부지사는 팔복예술공장 시설과 관람객 방문 현황, 야간관광 콘텐츠 'Club The 8'에 대해 보고받은 뒤 많

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야간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시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문체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4년간(2023~2026) 40억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24.4)을 투입해 전라감영, 풍남문, 객리단길 등 원도심을 핵심구역으로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을 연계권역으로 하여 야간 경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산업 육성 특례를 반영하고 시군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 신규 소프트웨어 강사 인력 63명 확보

###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진행

전북자치도가 소프트웨어 분야 예비 신규 강사 63명에 대한 교육을 끝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시, 전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소프트웨어(SW) 미래 채용 강사 양성 과정'을 완료하고 지난 24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 과정은 도내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생들은 총 160시간에 걸쳐 블록코딩,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 과정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이론부터 실습, 교수법 등 다양한 내용을 이수했다. 수료생 중 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50여 명은 오는 6월부터 '소프트웨어 미래채용 전문 강사'로 채용돼 도내 정보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